

상담자의 포커싱적 태도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동맹 차이 검증

조 준 희

주 은 선[†]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박사 과정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포커싱적 태도 척도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상담자의 다차원적 집단을 확인하고 이러한 집단에 따라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동맹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6명의 상담자 자료를 기반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R과 mclust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상담자 잠재 집단이 추출되었다. 잠재 집단들은 표본 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축을 가지는 타원형 분포를 띄는 모형(VEE)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 집단은 특성에 따라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이 일치하는 '일치형', 적절한 수준의 자기 수용을 보이는 '수용형', 내적 경험을 회피하는 '회피형'으로 명명되었다. 상담자 집단 유형에 따른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동맹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치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진정성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회피형 집단에 비하여 작업동맹 또한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포커싱적 태도를 중심으로 상담자의 다양한 하위 집단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따른 상담자 발달에 대한 시사점, 한계점,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포커싱적 태도,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동맹, 잠재프로파일 분석, R

[†] 교신저자 : 주은선,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Tel: 02-901-8595, E-mail: esjoo@duksung.ac.kr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무엇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62년 Gendlin은 Rogers와 함께 ‘무엇이 성공적인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상담을 한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독특한 태도와 반응에 주목하였다(Gendlin, 1996; 주은선, 2002). 구체적으로, 성공한 상담의 내담자들은 상담 초기에서부터 자신의 신체 감각에 민감하게 깨어 있고 몸의 느낌을 통한 내적 체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였으며 인지적 수준을 넘어 체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Gendlin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체험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심리치료인 포커싱(Focusing)을 개발하였다(Gendlin, 1967; Cornell, 1996). 이후, 포커싱 심리치료는 기존의 심리치료적 접근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으며 포커싱 체험 심리치료(Focusing-Oriented experiential psychotherapy)로 발전하였고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가 검증되었다(Elliott, Greenberg, & Lietzer, 2004; Pos, Greenberg, & Elliot, 2008; Choi, Pos, & Magnusson, 2016).

포커싱 체험심리치료(Focusing - Oriented experiential psychotherapy)는 내담자의 체험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심리치료로, 다른 치료적 접근과 구별되는 차별점을 지닌다(주은선, 2002; 이지영, 2018; Leijssen, 1998; Pos et al., 2008). 첫째, 몸에서 느껴지는 기본인 ‘감각 느낌(Felt sense)’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포커싱을 강조한다. 포커싱의 전제는 미해결된 감정이나 중요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소되거나 수용되지 않으면 인간의 내

면에 내재되어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 신체적인 반응에 주목하여 주의를 기울이면 내담자의 고유한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해결된 감정들이 존재를 인정받고 수용되는 경험이 수반되면, 정서의 정화와 함께 문제 해결의 단서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감각 느낌과의 내적 상호작용 과정인 포커싱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며, 자신의 감각과 느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인 포커싱적 태도에 주목한다. 포커싱적 태도는 자신의 몸 안에서 형성되는 감각 느낌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비판단적이고 따뜻한 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국내 경험 연구에서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았고(주은선, 신철애, 김병선, 김주영, 2011), 우울과 부적연 관련이 있었다(김현미, 주은선, 2018).

한편, 최근 연구들에서 포커싱적 태도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및 훈련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Gendlin(1984)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지금 경험하는 감정보다 이면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정과 반응을 다루는 것이 상담 과정의 핵심임을 지적하면서, 상담자가 자기 감각을 수용하고 포커싱을 내면화함으로써 내담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인식의 가장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초심상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긍정을 통해 숙련된 상담자로 성장하며, 상담자의 자기 수용은 내담자에게 깊은 단계의 수용과 공감, 진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Gendlin, 1967; Mearns, & Thorne, 2013). 즉, 상담자가 자신을 관리하고

보살핌을 기꺼이 제공하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전문적 책임감을 확보하고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상담자가 포커싱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은 개인 내적으로 상담자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돈하는 데 유용한 훈련을 포함한다(Cornell, 2013).

국내의 연구에서도 상담자가 숙련상담자로 성장하는 데에 포커싱적 태도가 갖는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금명자, 정상화(2021)는 국내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을 인지, 정서, 관계, 윤리, 교육, 기타의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면서, 포커싱적 태도를 상담자의 정서적 발달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여러 상담자 발달 연구에서도 포커싱적 태도가 진정성(주은선, 조준희, 2020), 역전이 관리 능력(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작업동맹(주은선, 김효정, 김설화, 2019)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포커싱적 태도는 내담자의 정신적 안녕 뿐 아니라 상담자의 전문성 함양에도 유용함이 여러 경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커싱적 태도를 중심으로 상담자의 유형을 하위 집단 별로 분석하고, 집단에 따른 상담자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커싱적 태도는 크게 다섯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영, 2016). 첫 번째 요인은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알아차리기’이다. 자신의 내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접촉하려는 특성은 자신의 경험을 선명히 알아차림으로써 상담자가 자신과 내담자의 경험을 분리하고 정확하

공감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준다(이선옥, 2012). 두 번째로, 걱정거리나 문제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여유 갖기’ 요인이 있다. 느낌에 대해 여유를 갖고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클수록 상담자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자신이 알아차린 느낌이나 감각을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표현하기’이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적절한 자기개방과 표현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번째로 몸의 느낌과 감각에 집중을 하여 그 의미를 음미하며 되새겨보는 ‘되새겨보기’이다. 이러한 태도는 상담자가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의미를 차분히 탐색함으로써 내담자의 상황에 알맞는 개입 방식을 적용하도록 돕는다(송언섭, 주은선, 2010). 마지막 요인은 포커싱 과정에서 느껴지는 내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기’이며, 상담자의 수용과 관련된다.

포커싱적 태도는 포커싱 체험심리치료의 핵심적인 치료 요인 중 하나로 여러 연구자들의 주요한 연구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차원적인 내용적 특성으로 인하여 포커싱적 태도의 구성 개념을 정확히 연구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들은 포커싱적 태도에 관련한 서로 다른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알아차리기’가 내적 경험에 대한 감수성을 측정한다면, ‘표현하기’는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측정하여 관계적 측면과 관련성이 깊다. ‘여유 갖기’가 자신의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되새겨보기’와 ‘수용하기’는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있

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측정한다. 이처럼 포커싱적 태도가 갖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하위 요인이 담고 있는 세부적인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주은선 외, 2016),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하위 척도가 측정하는 요인에 따른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였다(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을 채택한 연구들은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구성 요인을 분할하여 각각 다른 요인들과 갖는 관계를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므로써, 포커싱적 태도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포커싱적 태도의 각 하위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표현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단계적 흐름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주은선 등, 2016; 이지영, 2018), 포커싱적 태도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커싱적 태도가 갖는 다차원성과 하위 집단 유형을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 사람 중심의 접근 방법(Person-centered approach)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포커싱적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포커싱적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각 하위 요인에 따라 다른 변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탐구하는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의 연구가 이루어졌다(주은선, 고은별, 김은혜, 2018). 특히,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포커싱적 태도 척도의 하위 척도 별 세부 분석을 통해 하위 요인이 다른 변인과 갖는 관계를 탐색하거나(임여준 등, 2015), 포커싱적 태도 척도의 총점을 근거로 포커싱적 태도 상·중·하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는 임의적 군집 방법을 사용하였다(송언섭, 주은선, 2010; 정은

빛, 주은선, 2020). 그러나 하위 요인의 일부를 추출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포커싱적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 측정하는 특성 중 일부만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포커싱적 태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포커싱적 태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임의적인 집단을 구분하는 시도는 집단의 구분 기준이 연구자의 주관에 달려있어 과학적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하위 요인이 개인 내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반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잠재계층 분석을 연속형 측정변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분석 방법으로서(홍세희, 2020),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집단 내 다양한 이질성 속에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잠재적 하위 집단을 탐색하고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통계적 기법이다(Nylund-Gibson, & Choi, 2018). 즉,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연구 참가자 개개인의 문항 응답 패턴을 반영하여 최적의 하위 집단을 분류한다는 점에서 군집 분석이나 임의적인 집단 분할보다 방법론적으로 강점을 가진다(김혜인, 신호정, 2021; Ahlquist, & Breuing,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커싱적 태도가 갖는 다차원적 하위 요인이 측정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면서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집단을 확인할 필요성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포커싱적 태도에 따른 상담자의 잠재 집단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담자가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규명되었다(Skovholt, & Jennings, 2005; Wampold, &

Brown, 2005; Kim, Wampold, & Bolt, 2006). 이에 따라 상담자의 어떠한 특성과 자질이 상담에 기여하는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김창대, 한영주, 손난희, 권경인, 2009; 박수영, 최한나, 2013; 김영근, 2013; 주은선, 박영주, 2015). Wampold(2011)는 상담 성과를 내는 상담자의 특성과 행동을 제시하였는데, 작업동맹 형성하기, 치료 계획을 세우고 내담자와 공유하기, 수용과 따뜻함을 포함한 대인관계 기술, 내담자의 특성과 맥락 이해하기, 자기 내적 과정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역전이 관리하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김창대 등(2008)은 상담자와의 면담 내용을 질적 분석하여 이해, 관계, 태도, 기법 및 자기관리로 상담자 요인을 분류하였고 금명자, 정상화(2021)는 상담자의 전문성 영역을 인지, 정서, 관계, 윤리, 교육, 기타의 6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들 중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 동맹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정성은 Rogers(1961)에 의해 내담자의 자기실현을 돕고 치유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명시되면서 인간중심상담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정순, 2017). Rogers는 내담자를 돕는 관계의 조건으로 진정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어떠한 치료적 조건들도 관계가 진실하지 않다면 의미가 퇴색되므로 상담자가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상담자의 진정성은 작업동맹과 함께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진정성은 작업동

맹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준호, 이희경, 2014; 정명화, 홍정순, 2018), 상담자는 내담자와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진정성을 사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정당성을 얻고 상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주은선, 조준희, 2020). 이상을 종합하면, 진정성은 상담자의 개인 내적 요인이므로 직접적으로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개입 활동과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정순(2017)은 진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전문적 개입 활동으로 역전이 관리 능력을 제시하였다. 역전이 관리 능력은 상담 관계 및 성과와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임전옥, 장성숙, 2015), 상담자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담자를 위하여 진정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는 전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인지, 정서, 행동을 포괄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역전이는 상담 관계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호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담과정 속에서 역전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관점이 제기되었고(김순영 등, 2015), 최근에는 상담자가 역전이를 관리하고 내담자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상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택준, 신희천, 2016; 박윤원, 신호정, 2017; 조화진, 김민정, 2018).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은 상담자는 낮은 상담자에 비하여 높은 공감적 태도와 상담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한은

주, 최한나, 2013),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상담자들은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주은선 등, 2019). 또한, 신교숙과 김광웅(2001)은 상담자가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역전이 관리 능력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심지은(2008)은 상담자의 알아차림과 탈중심적 주의가 역전이 관리 능력을 증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의 내적 알아차림과 수용을 강조하는 포커싱적 태도와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능력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동맹은 상담의 성과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Martin, Garske, & Davis, 2000; Horvath, & Bedi, 2002; Horvath, Del Re, Fluckiger, & Symonds, 2011)으로,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변인이 작업동맹을 증진시키는지에 관한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담자의 내적 특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내담자를 존중할 줄 알며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우호적인 상담자의 내적 특성(Foreman, & Marmar, 1985), 정직성(Ackerman, & Hilsenroth, 2003), 진정성(홍정순, 2017)이 내담자와의 협력적 관계와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상담자의 정서 지능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과 내담자의 상담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전옥, 2021). 정서 지능이란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전이 관리 능력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역전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작업동맹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윤희섭, 정현희, 2012; 조화진, 김민정, 2018; 이정숙, 금명자, 2019). 최근의 연구들에서 작업동맹은 상담관계 변인일 뿐 아니라 상담자의 전문적인 관계 기술에 관련된 변인으로 이해되고 있어(금명자, 정상화, 2021),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변인에 포함시켰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R을 활용한 모형 기반 잠재프로파일 분석(model based 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수준을 중심으로 집단의 유형을 분류하고 하위 집단 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포커싱적 태도의 양상에 따른 상담자의 잠재집단을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발달을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 집단에 따라 나타나는 전문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상담자 발달 및 교육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포커싱적 태도에 따라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각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과 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잠재 프로파일에 따라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 동맹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주은선 등(2019)의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개인 상담 경험이 있으며 상담 관련 석사 전공 이상의 학력 또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담자들이었으며, 2019년 8월~2019년 9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였다. 응답자 총 219명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13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8.61($SD=8.55$)로 남성이 19명(9.22%), 여성이 187명(90.78%)이었다. 최종 학력은 석사 졸업이 161명(78.16%)로 가장 많았고 박사 재학이 15명(7.28%), 석사 수료자 11명(5.34%) 순이었다. 상담 경력은 5년 이상이 81명(39.32%), 3년 이상~5년 미만이 56명(27.18%), 2년 이상~3년 미만이 43명(20.87%), 1년 이상~2년 미만이 20명(9.71%)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

포커싱적 태도는 주은선 등(2016)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 척도인 알아차리기(9문항), 여유 갖기(6문항), 표현하기(5문항), 되새겨보기(8문항), 받아들이기(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문항이다. 알아차리기는 몸이 느끼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것을 측정하며(예: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몸의 반응을 잘 느끼는 편이다) 여유 갖기는 문제나 고민에 대하여 여유를 갖고 관찰하는 태도를 측정한다(예: 작은 문제들은 심각하게 여기

지 않고 여유 있게 바라본다). 표현하기는 알아차린 느낌이나 감각, 감정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측정하고(예: 나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되새겨보기는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판단적인 집중을 유지하며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측정하며(예: 잠자리에 누울 때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의를 집중하곤 한다), 받아들이기는 포커싱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느낌, 감정 등의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측정한다(예: 언제나 내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3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포커싱적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은선 등(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진정성

진정성은 홍정순(2017)이 개발 및 타당화한 진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 척도인 일치성(6문항), 비편향적인 자각(6문항), 진심어린 태도(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18문항이다. 일치성은 내적 경험과 외적인 표현이 다르지 않고 일치함을 측정하며(예: 겉으로는 밝아보이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우울할 때가 많다(역문항), 비편향적인 자각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함을 측정한다(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떠오르는대로 느낀다). 진심어린 태도는 상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측정하며(예: 상대와 진심으로 함께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 한국의 관계 중심적 진정성을 반영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정순(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다.

역전이 관리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은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가 개발한 것을 장세미(199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척도는 자기통합(11문항), 자기통찰(11문항), 공감능력(11문항), 불안관리(8문항), 개념화기술(9문항)이고 총 50문항이다. 자기통합은 상담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격 구조를 획득하였음을 측정하고(예: 나 자신의 정서적 경험으로부터 한발 뒤로 물러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통찰은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며(내담자로 인해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자주 자각한다), 공감능력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을 부분적으로는 동일시하지만 동시에 내담자와 스스로를 분리하며 압도되지 않는 능력을 측정한다(예: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곁으로 드러난 내용 이면의 숨은 의미를 이해한다). 불안관리는 상담자가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을 측정하며(예: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개념화 기술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과거를 비롯하여 치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역동을 이해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예: 현재의 내담자들과 과거의 내담자들 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세미(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로 높은 수준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작업 동맹

작업 동맹은 Horvath와 Greenberg(1989)가 개발한 상담자용 작업동맹 척도를 바탕으로 이수림(2008)이 제안한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합의(4문항), 과제동의(4문항), 정서적 유대(4문항)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이다. 목표합의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상담 목표를 합의하는 것을 측정하며(예: 내담자와 나는 서로 합의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과제동의는 상담 회기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를 이룬 정도를 측정하고(예: 내담자와 나는 상담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 정서적 유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편안하고 정서적 관계를 형성한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담자와 나는 서로 신뢰하고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 동맹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수림(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R의 dplyr, mlcusc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기술적 경향성을 살펴보고,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우시안 유한혼합모형 기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mlcusc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mlcusc 패키지는 모형 기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할 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패키지로, 1999년 공개된 이후 75회 이상

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파일의 분류와 군집, 분포의 결과를 도출하는 다양한 기능과 신뢰성을 확보해왔다(김희란, 2021; Scrucca, Fop, Murphy, & Raftery, 2016). mclust는 감염학, 유전자학과 같은 이공계열을 비롯하여 문화인류학, 임상심리학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심리학(서장원, 2017), 정신의학(김미경, 강민철, 김지연, 2021), 교육학(김희란, 2021)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mlcuster 패키지는 가우시안 정규분포 모형에 근거하여, 모집단에서 추정되는 군집의 특성을 군집의 평균 벡터를 중심으로 수(volume), 형태(Shape), 방향(Orientation)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14개 모형으로 분류하고 EM알고리즘에 의한 확률과 모수를 추정한다는 점(Scrucca et al., 2016)에서 다른 통계 분석 패키지와는 다른 차별점을 지닌다(Fraley, & Raftery, 2002; Baudry, Raftery, Celeux, & Gottardo, 2010).

본 연구는 정량적 측면에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ICL(Integrated Compete-data Likelihood Criterion)을 주요 적합도 지수로 확인하고, LRT와 BLRT를 기준으로 모형비교를 통해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살펴보았다. BIC를 통해 EM알고리즘 결과를 통한 모집단에서의 잠재군집의 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고, 한 사례가 1개 이상의 군집에 중복으로 속해있는 정도인 Entropy로 BIC를 조정한 값인 ICL(Scrucca et al., 2016)을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채택하였다. BIC와 ICL은 값이 클수록 모형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해석되며, 경쟁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BIC의 차이값이 10이상이면 모형 비교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김희란, 2021; Fraley, & Raftery, 1999). 다음으로,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를 실시하여 선택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BLRT는 전체모형과 축소모형을 둘씩 비교 검증하는 LRT를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p 값이 유의하면 전체모형(k)이 축소모형(k-1)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정성적 측면에서는 각 프로파일의 비율과 이론적 해석 가능성의 고려하였다(McCrae, Champman, & Christ, 2006). 간결성의 원칙(rule of parsimony)에 따라, 프로파일 별 개체 소속 비율과 프로파일의 분포를 확인하여 프로파일 분류도가 5% 미만인 집단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Lubke, & Neale, 2006).

최적 잠재프로파일을 결정한 다음,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차원에 따라 나타나는 프로파일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상담자의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 동맹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정(Scheffe)을 통해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Conhen's d 를 산출하여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포커싱적 태도와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동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p < .01$) 포커싱적 태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역전이 관리 능력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1	1-1	1-2	1-3	1-4	1-5	2	3	4
포커싱적 태도	1								
1-1. 알아차리기	.55**	1							
1-2. 여유 갖기	.48**	-.09**	1						
1-3. 표현하기	.64**	.11**	.19**	1					
1-4. 되새겨보기	.82**	.47**	.27**	.36**	1				
1-5. 받아들이기	.68**	.18**	.21**	.35**	.46**	1			
2. 진정성	.31**	-.12**	.20**	.36**	.21**	.35**	1		
3. 역전이 관리 능력	.38**	.08**	.24**	.37**	.25**	.28**	.62**	1	
4. 작업동맹	.30**	.07**	.13**	.33**	.22**	.23**	.43**	.50**	1
M	2.31	2.10	2.14	2.43	2.33	2.57	3.85	3.84	5.44
SD	.26	.44	.39	.43	.44	.38	.42	.35	.53
왜도	-.51	-.20	.00	-.55	-.56	-.40	.28	.02	-.15
첨도	.37	-.64	.00	-.24	-.15	-.98	-.34	-.25	-.20

주. ** $p < .01$

($r = .38, p < .01$)이며, 진정성($r = .31, p < .01$), 작업 동맹($r = .30, p < .01$)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 진정성, 작업동맹이 높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프로파일 최적의 군집 수 결정

최적의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집 수와 특징에 따른 BIC값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BIC가 높게 나타나는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김희란, 2021). 따라서 BIC를 기준으로 적합도가 높은 모형인 EEE(Ellipsoidal, equal volume, shape, and orientation), VEE(Ellipsoidal, variable volume, and

equal shape and orientation), EEV(Ellipsoidal, equal volume and equal shape)로 모형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EE, VEE, EEV 모형 중 최적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한 모형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집수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할수록 BIC가 증가하였으나 4에서 7로 증가하였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Entropy로 보정한 ICL 지수는 군집의 수를 2개에서 3개로 증가했을 때는 높아졌으나 3개에서 4개, 7개로 늘려감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BLRTS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k=3$ 일 때와 $k=7$ 일 때 유의하였고 $k=2$ 와 $k=4$ 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성적 측면에서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5% 이하의 군집을 포함한 $k=7$ 모형은 $k=3$ 모형에 비하여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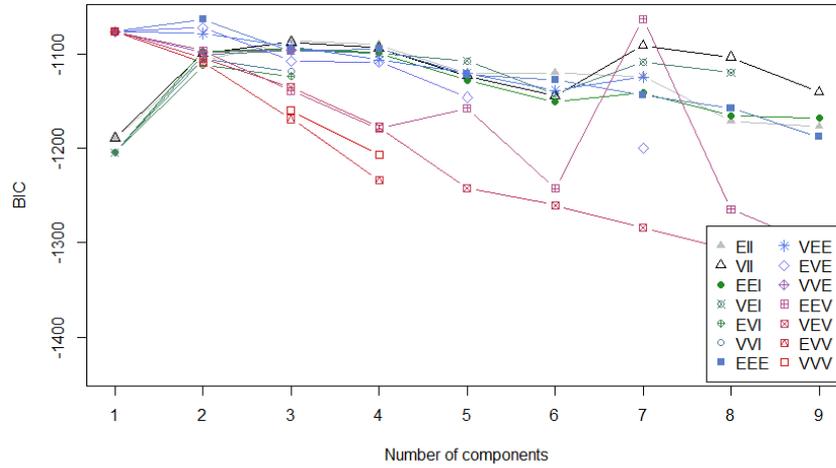


그림 1. 프로파일의 수 별 BIC 적합도

표 2. 모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수

모형	군집 수	BIC	ICL	LRT	BLRT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						
						1	2	3	4	5	6	7
EEE	2	-1049.70	-1091.85	16.55	.09	49.3	50.7					
VEE	3	-1027.67	-1029.23	61.28	.00	49.4	32.6	18				
VEE	4	-1003.69	-1046.11	10.52	.59	42	31.7	3.8	22.4			
EEV	7	-1062.91	-1073.68	265.35	.00	6.3	24.3	3.3	12.8	31.8	6.3	15.2

주. *** $p < .001$

위집단이 효율적으로 대표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각하였다. 이에 $k=3$ 인 모형을 최종 잠재프로파일로 결정하였다. 최종 프로파일의 모형은 VEE(Ellipsoidal, variable volume, and equal shape and orientation)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구별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잠재프로파일의 특성

도출된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의 하위 요인 별 표준화된 평균과 구성 비율을 표 3에 제시하였고, 표준화된 평균을 중심으로 시각화한 자료를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첫 번째 프로파일 a는 가장 많은 상담자가 속하는 집단으로 49.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상담자는 평균적인 수준의 포커싱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보통 수준의 ‘받아들이기’ 정도를 나타냈다. 이 유형은 적절한 자기 알아차림, 내적 여유, 언어적 표현,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의 능력을 보였기에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b는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인 32.6%를 차지하였다. 프로파일 a와 비교하였을 때, 알아차림, 여유갖기, 표현하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되새겨보기와 받아들이기에서는

표 3. 잠재프로파일의 하위 요인 별 평균 및 구성 비율

잠재 프로파일	구성비율	M(SD)				
		알아차리기	여유갖기	표현하기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
프로파일 a	49.4% (102명)	0.00	0.02	-0.09	-0.08	-0.16
프로파일 b	32.6% (67명)	0.23	0.16	0.40	0.53	1.13
프로파일 c	18% (37명)	-0.40	-0.35	-0.47	-0.74	-1.60

주. 평균은 표준화 값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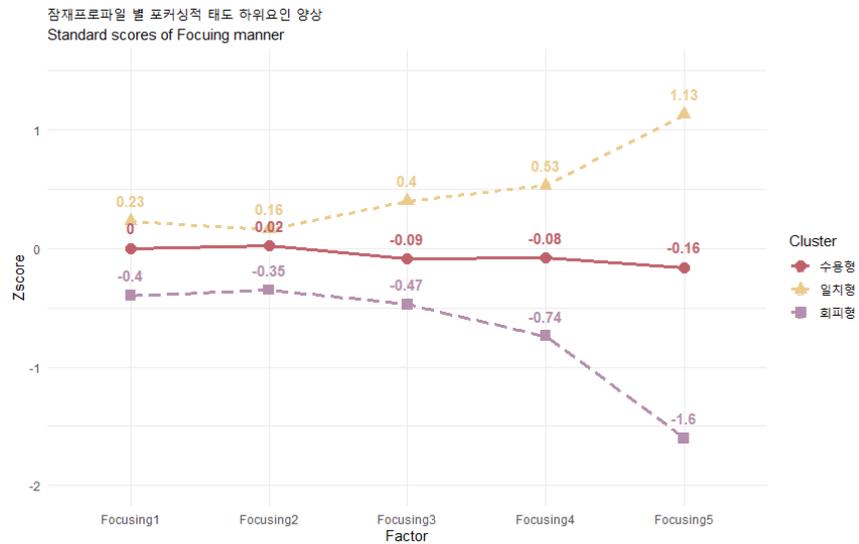


그림 2. 잠재프로파일 별 포커싱적 태도 하위요인 양상

높은 특성을 보였다. 프로파일 a에 비하여 자기 내면에 머물러 스스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표현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의 내면과 의식 수준, 표현이 일치하는 ‘일치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 c는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적은 비율(18%)을 차지하며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하위요인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일치형’ 프로파

일과 비교하였을 때 표현하기,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와 같이 포커싱적 태도 중 자기자신의 내면에 머무르며 깊이 있게 접촉하는 것과 연관된 하위 척도가 낮아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내적 경험을 회피하는 ‘회피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의 표준화 점수의 양상을 통해, ‘되새겨보기’

와 ‘받아들이기’가 프로파일을 구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일치형’과 ‘회피형’에서 2 표준편차 이상, ‘일치형’-‘수용형’과 ‘수용형’-‘회피형’에서 각각 1 표준편차 이상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되새겨보기’는 ‘일치형’과 ‘회피형’에서 1 표준편차 이상, ‘일치형’-‘수용형’과 ‘수용형’-‘회피형’에서 각각 1/2 표준편차 이상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현하기’는 ‘일치형’과 ‘회피형’에서 1/2 표준편차 이상 1 표준편차 이하의 차이를 보여, ‘일치형’과 ‘회피형’을 구분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프로파일 유형 별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및 작업 동맹의 차이

상담자의 유형 별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 동맹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정성 ($F(2,203)=10.95, p<.001, d=.33$), 역전이 관리 능력($F(2,203)=7.51, p<.001, d=.27$), 작업 동맹($F(2,203)=4.49, p<.001, d=.21$)에서 모두 유형 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형 별로 나타난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일치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진정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치형’은 ‘회피형’에 비해 작업 동맹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즉, ‘일치형’은 ‘회피형’에 비해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 동맹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수용형’에 비교하여서도 높은 진정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보였다. 한편, ‘일치형’과 ‘수용형’을 비교하였을 때, 작업 동맹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용형’과 ‘회피형’은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및 작업동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포커싱적 태도에 관한 다차원적 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커싱적 태도 척도의 하위 5개 요인을 가우시안 유한 혼합모형에 기반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표 4. 유형 별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동맹의 차이

구분	수용형 (n=102)		일치형 (n=67)		회피형 (n=37)		F	Post Hoc (Scheffe)
	M	SD	M	SD	M	SD		
진정성	3.79	.38	4.02	.44	3.68	.35	10.95***	b>a b>c
역전이 관리 능력	3.79	.33	3.98	.32	3.76	.41	7.51***	b>a b>c
작업동맹	5.40	.49	5.58	.52	5.29	.58	4.49*	b>c

주. * $p<.05$, *** $p<.001$

주. a: 수용형 b: 일치형, c: 회피형

군집화하였다. 군집에 따른 상담자의 특성과 진정성,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동맹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커싱적 태도에 따른 상담자의 프로파일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상담자들이 이루는 군집을 확인하였다. 세 가지 유형에 따른 상담자의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인 ‘일치형’ 유형에 속한 상담자들은 ‘일치형’, ‘수용형’, ‘회피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치형’ 상담자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은 ‘되새겨보기’와 ‘받아들이기’ 수준을 보였으며, ‘회피형’과 비교하였을 때에 ‘표현하기’ 수준 또한 높았다. 이 유형에 속한 상담자는 포커싱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깊이 있는 성찰과 내적 대화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기수용과 인격적 성숙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일치형’ 유형은 Rogers(1986)가 제시한 치료적 상담자 요인 중 ‘상담자가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 내담자에게 표현되는 것이 다르지 않고 일치함’의 유사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Rogers(1959)는 자신의 경험을 가치 조건화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자기 경험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자기 수용은 타인에 대한 비판단적이고 무조건적인 수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Berger, 1952; Fey, 1954). 따라서 ‘일치형’에 속하는 상담자는 자기자신을 수용하는 경험을 통하여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포커싱적 태도 프로파일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일치형’ 상담자는 포커싱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깊이 머무르며 무의

식적인 경험들을 잘 알아차리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의식적인 수준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실천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치형’ 상담자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담 장면에서 진정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게 나타나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담자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담 장면에서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자기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상담자의 개인적 소양을 증진시키는데 국한되지 않고,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인 ‘수용형’은 가장 많은 상담자가 속해 있는 유형이다. ‘수용형’에 속한 상담자들은 ‘일치형’에 속하는 상담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되새겨보기’와 ‘받아들이기’ 수준을 보였지만 다른 포커싱적 태도 하위 요인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담자들은 자신의 몸의 감각과 느낌에 대해 알아차리고 이러한 느낌이 갖는 개인적 의미와 심리적 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내적인 소통을 통해 자기이해와 수용에 이르는 데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형’ 상담자들은 외부나 타인보다는 자신의 내적 기준을 중심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긍정적으로 여기고자 하는 수용적인 특성(양곤성, 김광수, 2021)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수용형’ 상담자의 프로파일은 자기 내면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언어적으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한편,

그러한 경험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수용하는 데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포커싱적 태도는 자신의 마음을 호기심을 갖고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자기 경험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Gendlin, 1981), 특히 자신의 내적 경험의 의미를 음미해보는 ‘되새겨보기’와 ‘받아들이기’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자기 과정의 측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수용형’의 상담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지만 때때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옳지 않은 특성으로 여겨지는 내적 경험은 부정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내적 경험을 인식하고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수용의 시작이자 출발점 (Linehan, 1994)임을 감안하면, 수용형 상담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자기자신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는 초기 과정으로 이해해볼 여지가 있다. 포커싱 체험심리치료에서는 개인에게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사고와 인지, 감각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일부로서의 경험을 관찰하도록 요구한다(주은선, 2011). 이러한 역설적인 요구를 실천하는 것은 낯설고 어려운 내적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압도되거나 좌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상담자들의 경우, 자신의 내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개인적 평가의 기준에 따라 거리를 두고 통제하려 함으로써 대처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신의 신체 감각을 반추적이거나 자기초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때 순간 일어나는 몸 내부로터의 감각이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며 비판단적

로 대하는 것은 적응적으로 알려져 있다(김안나, 2020). 따라서 상담자들이 자신의 신체 감각을 편안하고 비판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상담자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주은선, 서동신, 2020). 또한, ‘수용형’ 유형에 속하는 상담자들은 진정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있어서도 ‘일치형’ 유형에 비해 낮은 응답을 보여, 상담 장면에서 진솔하게 상담자의 자기를 활용하거나 내담자를 위하여 상담자의 내적 활동을 잠시 유보하는 영역에서 좌절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좌절과 실수 경험은 상담자를 위축되게 만들거나 상담자의 자기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수용형’ 상담자들이 ‘일치형’ 상담자에 비해 자기 수용적 경향이 낮은 것을 고려하면, 이 유형의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좌절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처리하기 위해 내적 자원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의 일치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유형인 ‘회피형’은 포커싱적 태도 하위 척도 중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유형이며, 가장 낮은 비율의 분포를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하는 상담자는 평균 수준보다 낮은 내적 경험에 대한 관심과 자기 수용 경향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관찰된다. 이 유형의 상담자들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인 특성을 가진다. 상담자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질수록 부정적인 역전이를 적게 드러내고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부적 정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김순영 등, 2015)는 점에서, 이 유형의 상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부정 정서를 처리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회피형’ 유형의 상담자들이 갖는 부정적 정서 처리에서의 취약성은 스트레스와 소진(박정희, 주은선, 2012)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신의 내면에서 자원을 확보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회피형’ 유형의 상담자들은 ‘일치형’에 비하여 진정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 작업 동맹에 있어서 낮은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상담자의 자기이해와 성찰을 중요시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정희선, 김지현, 2017). 그런데 본 연구결과의 흥미로운 점은 ‘수용형’ 상담자들은 ‘일치형’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작업동맹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회피형’ 상담자들은 ‘일치형’에 비하여 작업동맹에서도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피형’ 상담자들은 ‘일치형’에 비하여 작업동맹이 낮은 뿐 아니라, 포커싱적 태도 하위 요인인 ‘표현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특성이 다른 유형인 ‘수용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려해본다면, 유형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표현하기’ 양상이 상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 수준 차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파일을 분류하는데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인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함으로써, 상담자의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이 상담자 발달과 전문성 획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받아들이기’를 측정하는 척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몸에서 느

껴지는 감각은 사실이라고 믿는다’, ‘언제나 내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로,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신뢰하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주로 측정한다. 의미적으로 볼 때,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통합해나가는 태도인 자기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유형 분류에서 자기수용이 의미있는 역할을 함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자기수용이 상담자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덕목이라는 주장(김은실, 2014; 임전옥, 장성숙, 2012)과 맥락을 같이 한다. 김은실(2014)은 상담자의 자기수용은 상담자의 개인적 안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상담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였고, 임전옥, 장성숙(2012)은 상담자가 스스로를 수용함으로써 정서적인 건강을 이루고 상담자로서 더 나은 발달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Rogers(1995)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수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담자의 자기수용은 내담자가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담자의 자기수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수용은 내담자를 위한 상담의 치료적 목표로 이해되고 그 유용성이 검증되어왔으며(양곤성, 김광수, 2021) 상담자의 자기수용이 상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관심은 비교적 저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자기수용이 상담자의 발달 및 전문성 연구에서 갖는 중요성을 환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수용이 자기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기분에 호기심을 갖고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인 ‘되새겨보기’의 중요성을 설명해볼 수 있다. ‘되새겨보기’는 몸에서의 느낌과 연결감을 유지하면서, 깊이 있는 내적 탐색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가 자신의 내적 상태에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기 경험과 상태를 자각하고,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융통성 있게 주의집중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였던 김은지, 이희경(201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채민정, 김창대, 김수임(2008)은 상담자의 자기대화(self-talk)를 상담자 발달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제시하였는데,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구인인 ‘되새겨보기’는 감각 느낌과의 자기 대화를 통해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내적 경험에 머무르며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되새겨보기’를 통해 상담자들이 내적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높은 차원의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내적 수용을 촉진함으로써 상담자의 발달을 돕는 교육적 목적의 상담자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안된다. 상담자의 전문적인 능력은 상담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내담자가 내적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Mohr, Gelso, & Hill, 2005). 그러나 상담자가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내담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내적 세계와 일상 경험을 세밀하

게 이해하고 심리치료 이론과 경험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이영순, 2010). 특히, 초심 상담자들은 짧은 상담 경험과 전문성 부족(김다희, 송미경, 2015)으로 인한 어려움과 좌절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초심상담자가 정밀한 자기이해와 수용을 통해 스스로를 신뢰(Larson, & Daniels, 1998)하고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초심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인 내적 통합을 이루어 더 높은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김은수, 권경인, 2017). 하지만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성찰과 인격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조현주, 노지애, 이현예, 정성진, 현명호, 2014)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 중 기술적 측면에만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권경인, 김지영, 엄현정, 2020), 상담자의 개인적 수용과 자기 신뢰를 통해 기술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담자의 프로파일을 참고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초심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수용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돈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포커싱적 태도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으나, 참가자가 상담자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집단이 전체 모집단 및 비교 집단에 비하여 갖는 특수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 넓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담자와 상담자가 아닌 비교 집

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하위 집단의 분포를 살펴본다면, 상담자 집단이 갖는 특성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참가자의 90.78%가 여성 상담자였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담자가 66.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비교적 편중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상담자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주요 변인들이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자기인식 왜곡 및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담자 프로파일 중 ‘회피형’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수한 분포가 상담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응답 편향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3자의 관찰 보고를 포함한 객관적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에 의하여 보고된 작업동맹이 측정되었는데, 상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과 내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영근, 2013). 또한, 상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보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이 상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Horvath, & Symonds, 1991; Martin et al., 200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에 관한 내담자의 보고를 토대로 한 질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상담 성과에 대한 더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포커싱적 태도 하위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였으나, 포커싱적 태도의 어떠한 하위 요인이 상담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살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준상관분석과 같은 분석을 활용하여 변인 간의 세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위 집단을 규명한다면,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을 더 면밀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인, 김지영, 엄현정 (2020). 초심집단상담자 교육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심집단상담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41(1), 67-90.
- 금명자, 정상화 (2021).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 동향. *교육문화 연구*, 27(2), 483-508.
- 김다희, 송미경 (2015). 초심상담자의 심리적 소진 유형에 따른 상태불안과 정서인식 차이. *교육치료연구*, 7(2), 229-248.
- 김미경, 강민철, 김지연 (2021).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대한 잠재계층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181-189.
- 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상담자의 상담 경력에 따른 상위인지 자각과 포커싱적 태도가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2), 157-178.
- 김안나 (2020). 심신치료 내담자 몸 중심 마음 챙김 경험에 관한 탐구. *한국명상학회지*, 10(2), 23-51.
-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 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02.
- 김은수, 권경인 (2017). 구조화 집단상담에서 초심집단상담자의 어려움 인식 연구. *교육치료연구*, 9(1), 207-232.

- 김은실 (2014).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자 애착과 자기수용. *상담과지도* 49, 91-104.
- 김은지, 이희경 (2018). 초심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공감적 이해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191-207.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일반: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창대, 한영주, 손난희, 권경인 (2009). 상담일반: 상담전공 내담자가 지각한 효과적인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10(1), 83-107.
- 김택준, 신희천 (2016).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291-309.
- 김현미, 주은선 (2018). 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포커싱적 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0(2), 53-68.
- 김혜인, 신호정 (2021). 청소년의 자기연민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학업소진과 완벽주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229-1254.
- 김희란 (2021). R을 이용한 모형 기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대학생 학습참여 유형과 학습성과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2(2), 347-373.
- 박수영, 최한나 (2013).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4(5), 2969-2986.
- 박윤원, 신호정 (2017).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 슈퍼비전 경험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89-103.
- 박정희, 주은선 (2012). 상담자의 스트레스, 소진(Burnout) 관계에서 포커싱(Focusing)의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8, 19-43.
- 서장원 (2017). 강박사고를 경험하는 대학생 유형 분류: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인간이해*, 38(2), 1-12.
- 서준호, 이희경 (2014).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717-1734.
- 송언섭, 주은선 (2010). 대학생의 포커싱 태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행동 차이. *인간이해*, 31(2), 329-347.
- 신교숙, 김광웅 (2001).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 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 4(1), 57-69.
- 심지은 (2008). 상담자의 마음챙김, 공감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곤성, 김광수 (2021). 자기수용 개념의 연구와 역사적 동향 탐색과 제언. *상담학연구*, 22(1), 1-17.
- 윤희섭, 정현희 (2012).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 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463-2482.
- 이선옥 (2012).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포커싱적 태도가 역전이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림 (2008). 상담자의 지혜와 상담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순 (2010). 상담일반: 초보 상담자들의 어려움과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성과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021-1035.
- 이정숙, 금명자 (2019). 상담 작업동맹의 이론

- 적 이해 및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345-371.
- 이지영 (2018). 체험적 심리치료에 대한 체계적 고찰: 효과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601-633.
- 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애착유형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포커싱적 태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61-287.
- 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84.
- 임전옥, 장성숙 (2015). 상담자의 정서기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491-518.
- 임전옥 (2021). 상담자, 내담자의 정서기능이 작업동맹을 매개로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인간이해, 42(1), 71-100.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 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화, 홍정순 (2018). 상담자 진정성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공감적 이해와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9(1), 103-122.
- 정은빛, 주은선 (2020). 여대생의 포커싱적 태도 수준에 따른 진로장벽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1), 1-30.
- 정희선, 김지현 (2017). 상담자 자기성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1), 87-109.
- 조현주, 노지애, 이현예, 정성진, 현명호 (2014). 초보 상담자들의 자기 성장을 위한 마음챙김 자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5-47.
- 조화진, 김민정 (2018).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 역전이 관리능력과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1), 41-64.
- 주은선 (2002). 포커싱(Focusing) 체험 상담의 이해와 적용. 상담학연구, 3(2), 517-527.
- 주은선 (2011).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내마음의 지혜와 선물). 서울: 학지사.
- 주은선, 고은별, 김은혜 (2018).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접근 관련 국내연구의 내용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7(3), 135-169.
- 주은선, 김효정, 김설화 (2019).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 역전이 관리능력을 통한 포커싱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8(4), 235-268.
- 주은선, 박영주 (2015). 상담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게재 논문(1983-201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453-484.
- 주은선, 서동신 (2020). 포커싱 워크숍 경험을 통한 포커싱적 태도 훈련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451-463.
- 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영 (2011).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의 수정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111-1128.
- 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영 (2016).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 개정판의 개발 및 타당화. 스트레스연구, 24(1), 23-33.
- 주은선, 조준희 (2020). 포커싱적 태도와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진정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6), 1285-1299.

- 채민정, 김창대, 김수임 (2008). 내담자의 회기 불참에 대한 상담자 자기대화 분석: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9(4), 1449-1474.
- 한은주, 최한나 (2013). 역전이 활용능력과 상담만족도의 관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4(1), 75-91.
- 홍세희 (2020).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모형*. 서울: 박영사.
- 홍정순 (2017). 진정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29-158.
- 홍정순 (2017).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577-605.
- Ackerman, S. J., & Hilsenroth, M. J. (2003). A review of therapist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positively impac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1), 1-33.
- Ahlquist, J. S., & Breunig, C. (2009). *Country clustering in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https://nbn-resolving.org/urn:nbn:de:0168-ssoar-302713> 에서 검색.
- Baudry, J. P., Raftery, A. E., Celeux, G., Lo, K., & Gottardo, R. (2010). Combining mixture components for clustering.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Graphical Statistics*, 19(2), 332-353.
- Berger, E. M. (1952). The relation between expressed acceptance of self and expressed acceptanc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47(4), 778-782.
- Choi, B. H., Pos, A. E., & Magnusson, M. S. (2016). Emotional change process in resolving self-criticism during experiential treatment of depression. *Psychotherapy Research*, 26(4), 484-499.
- Cornell, A. W. (1996). *The power of focusing: A practical guide to emotional self-healing*. Oakland, CA: New Harbinger.
- Cornell, A. W. (2013). *Focusing in clinical practice: The essence of chang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Elliott, R., Greenberg, L. S., & Lietaer, G. (2004). Research on experiential psychotherapies. In M. J. Lambert (Ed.),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5th ed.) (pp. 493-539). New York: John Wiley & Sons.
- Fey, W. F. (1954).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and its relation to therapy-readines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269-271.
- Foreman, S., & Marmar, C. R. (1985). The rapist actions that address initially poor therapeutical alliance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922-926.
- Fraley, C., & Raftery, A. E. (1999). Mclust: Software of model-based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lassification*, 16(2), 297-306.
- Fraley, C., & Raftery, A. E. (2002). Model-based clustering, discriminant analysis, and density esti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7(458), 611-631.
- Gendlin, E. T. (1967). Subverbal communication and therapist expressivity: Trends in client-centered therapy with schizophrenics. In C. R. Rogers & B. Stevens (Eds.), *Person to person: The problem of being human* (pp.119-128).

- Lafayette, CA: Real People Press.
- Gendlin, E. T. (1981). *Focusing*. New York: Bantam.
- Gendlin, E. T. (1984). The client's client: The edge of awareness. In R. F. Levant & J. M. Shlien (Eds.), *Client-centered therapy and the person-centered approach* (pp.76-107). New York: Praeger.
- Gendlin, E. T. (1996). *Focusing-Oriented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 Horvath, A. O., & Bedi, R. P. (2002). The alliance. In J. C. Norcross (Eds.),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Therapist contributions and responsiveness to patients*(pp. 37-69), North Carolina: Oxford University Press.
- Horvath, A. O., Del Re, A. C., Fluckiger, C., & Symonds, D. (2011).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48(1), 9-16.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223-233.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9-149.
- Kim, D. M., Wampold, B. E., & Bolt, D. M. (2006).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A random effects modeling of NIMH TDCRP data. *Psychotherapy Research*, 16(2), 161-172.
- Larson, L. M., & Daniels, J. A. (1998). Review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literatur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2), 179-218.
- Leijssen, M. (1998). Focusing micro processes. In L. S. Greenberg, J. C. Watson & G. Lietaer (Eds.), *Handbook of experiential psychotherapy* (pp. 121-153), New York: Guilford.
- Linchan, M. M. (1994). Acceptance and change: The central dialectic in psychotherapy. In S. C. Hayes, N. S. Jacobson, V.M. Follette, & M. J. Dougher (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pp. 13-32). Nevada: Context Press.
- Lubke, G., & Neale, M. C. (2006). Distinguishing between latent classes and continuous factors: Resolution by maximum likelihood?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1(4), 499-532.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Values*, 46(3), 218-225.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earns, D., & Thorne, B. (2013). *Person-centered counselling in action* (4th ed.).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Mohr, J. J., Gelso, C. J., & Hill, C. E. (2005). Client and counselor trainee attachment as predictors of session evalu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in the first counseling ses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298-309.
-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 Science*, 4(4), 440-461.
- Pos, A. E., Greenberg, L. S., & Elliot, R. (2008). *Twenty-first century psychotherapies: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ory and practice* (pp. 80-121).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formulations of the person and the social context*, Vol. 3 (pp.184-256). New York: McGraw-Hill.
- Rogers, C. R. (1986). Reflection of feelings and transference. *Person-Centered Review*, 1(4), 375-377.
- Rogers, C. R. (1995). What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mean to m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5(4), 7-22.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Scrucca, L., Fop, M., Murphy, T. B., & Raftery, A. E. (2016). Mclust 5: clustering, classification and density estimation using Gaussian finite mixture models. *The R Journal*, 8(1), 289.
- Skovholt, T. M., & Jennings. L. (2005). Mastery and experience in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1), 13-18.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8(3), 411.
- Wampold, B. E., & Brown, G. S. (2005). Estimating variability in outcomes attributable to therapist: A naturalistic study of outcomes in managed car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5), 914-923.
- Wampold, B. E. (2011). *Qualities and actions of effective therapists: Research suggests that certain psychotherapist characteristics are key to successful treatmen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ducation.
<http://linfraser.com/wp-content/uploads/2015/05/effective-therapists.pdf> 에서 검색
- 원 고 접 수 일 : 2022. 01. 24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4. 14
게 재 결 정 일 : 2022. 04. 26

Latent Profile Analysis of Korean Counselor's Focusing Manner: Differences in Authenticity, Countertransference, Working Alliance

Junhee Cho

Eunsun Joo

Duksu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PhD Candid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206 Korean counselors into latent profiles based on the 5 subscales of Korean Focusing Manner Scale-Revised and to analyze the patterns of the identified latent classes. In addition, these profiles were explor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authenticity, countertransference, and working allian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R and Mclust. As a result, three distinct profiles were identified: congruent, acceptance, and avoidance. The latent class model appeared to be an ellipsoidal model, with latent groups of various sizes, but had equal shape and orientation. One-way ANOVA showed that the congruent type had significantly higher authenticity, and countertransference than the other types. The congruent type also had a higher working alliance than the avoidance type. This study comprehensively identified various subgroups of Korean counselors based on their focusing manner. Based on the findings, the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counselor development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focusing manner, authenticity, countertransference, working alliance, latent profile analysis, R*